

## 두 아담

말씀: 창3:20

요절: 창3:20

오늘은 두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겠습니다. 아담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비롯한 삶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아담은 옛 날의 흘러간 인물, 성경 속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담은 창조의 정점이요, 완결에 해당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 아담이 받은 심판, 아담의 죽음,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과 저주 등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아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가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담은 천사나 영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아담 이전의 인류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짐승이나 천사나 다른 창조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또 다른 아담이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또 다른 아담의 순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또 다른 아담이 담당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해결하십니다.

-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둘째 사람입니다(고전15:47).
- 아담은 살아 있는 혼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십니다(고전15:45).
-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롬5:14). 예수님은,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갈4:4 히1:3) \*여자의 씨(창3:15)
-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눅3:38).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요3:16,18).
-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딤후2:14).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지만(딤후2:14) 죄를 범하였습니다(롬6:17-19).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히4:15) \*히2:18;5:8
- 아담의 몸에서 자매요, 아내 된 여자가 나왔습니다(창2:21-23).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내 된 교회가 나왔습니다(엡5:30-32).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담을 대신해 죽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벧전1:20).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날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계13:8). 아담을 지으신 분께서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담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창2:19).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친히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그에게 데려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창2:20).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창조 세계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창1:28 시8:5-6). 아담이 그것들 가운데서 자신의 합당한 협력자를 찾을 수 없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창2:21-22). 아담은 주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엡2:2;5:6 골3:6).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담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아담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한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며,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무슨 시도를 해도 땅에 내려진 저주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땅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의 상태는 아담의 죄, 우리의 상태를 생생하게 증언해 줍니다. 아담으로 인해 저주 받은 땅은 아담이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은 아담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은 신화적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은 역사적 사건이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행한 첫 번째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것이었습니다(창3:8). 여러분은 죄를 지은 후 무엇을 합니까?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일을 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도망하거나 변명하는 일은,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받은 아담의 자녀들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은 이런 아담의 성품, 기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들이 되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싫어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창3:17).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해도 이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의 흙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주님의 심판은 역사적 사건이며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되셔서 아담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을 수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요1:12).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창1:2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히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을 회복합니다(벧후1:3). 창세기 5:1-2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창5:1-2).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양,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5),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 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롬8:29),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요일3:2).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창5:2)고 합니다. 아담은 family name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둘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전 생애는 9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날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대속을 받았고 땅을 갈며 땅의 소산을 먹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아담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운명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 저주, 형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다면 마지막 아담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아담을 통해 삶과 운명이 모두 바뀝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를 알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3을 보십시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창5:3). 백삼십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 아벨,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외모는 아담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성품(divine nature)이 아닌 불법 가운데 형성되어 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레17:11,14) 고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성품, 아담의 기질, 아담 안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은 고스란히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는 또 다른 아담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신성한 성품을 얻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벧후1:3).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눅3:38).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요일1:12).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요일3:2).

아담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8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신32:8).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

으니”(행17:26). 모든 민족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분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담’이라 불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고전15:47).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고전15:45). “마지막”이란 말은 더 이상의 아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한 인류가 첫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가 둘째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물의 머리이시며 첫 열매이십니다.

로마서15:12-21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롬5:14). 여기서 우리는 두 아담에 대한 분명한 대조,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15-16절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롬5:15-16).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극과 극의 대칭점에 서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의 전달자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전달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 온 사망은 죄의 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생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담을 통해 내려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칭의(justification)에 이릅니다.

17-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균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균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롬5:17-19).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균림했습니다.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 위에 균림합니다. 아담은 이미 죽었지만 에덴에서 그에게 심판으로 내려진 사망, 저주, 형벌,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의의 선물, 생명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 위에 균림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분명히 대칭점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5:21-22;45-47을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15:21-22). 사망은 사람을 통해 임했습니다. 사망은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이 사망의 통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임했습니다. 부활은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나 진보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그리는 것처럼 저 외계의 진보된 문명자들이 가져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합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룹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서 육체적 출생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출생을 합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요3:6-7). 이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고린도전서 15:45-4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전 15:45-47).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Living soul(창2:7).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지만 영은 살려 줍니다(요6:63).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 주는 영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보다 크신 주(Lord)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한 도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창5:1)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유의해서 읽으면 아담에게서 나온 인종의 모든 구성원은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저주로 끝납니다(말4:6).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마1:1).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새로운 인종의 구성원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계21-22장).

요한복음 20:15절에는 이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분을 동산지기라고(창2:15) 생각했습니다. 본래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동산지기’였습니다.

##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말씀: 창3:20-21

요절: 창3:21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창세기에 계시된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15가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구절이라면 창세기 3:21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어린 양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 후 처음 피를 흘리며 죽은 첫 번째 창조물은 어린양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린양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창22:7-8). 어린양이란 호칭은 그분의 ‘피와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이 성취하신 사역, 완성된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요10:38)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곧바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창조 사역보다 더욱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 옷’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 옷을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천의무봉(天衣無縫)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이 스스로 옷을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죽음)이 필요합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옷은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 줍니다. 옷은 의를 나타냅니다. 옷은 신분과 소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한편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들을 제거하시는 수단 즉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공의를 없애는 일입니다.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냥 제거한다면 자신의 말씀들을 어기는 불법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스스로에게 짊어지시고 제거하신다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족될 수 있으며, 죄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심판, 저주에 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에 들어온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거하신 ‘일들(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첫째, 고통(창3:16)입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나와 고통 가운데 살다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사53:11 행2:24).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사53:11a).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행2:24). \*Pain.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에덴에서 선포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자사의 몸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치른 유일한 분이십니다.
- 둘째, 저주입니다(창3:17).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저주의 산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저주를 받은 이 사건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저주 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3:13).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 셋째, 슬픔입니다(창3:17).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사53:3).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griefs)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sorrow)을 담당하였거늘 ...”(사53:4).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슬픔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사53:3).
- 넷째, 땅의 가시와 엉겅퀴입니다(창3:18).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 가시 채를 쓰셨습니다(마27:29).
- 다섯째, 이마에 흘리는 땀입니다(창3:19). 흔히 인간의 육체적 고난을 일컬어 “피와 땀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도 사람의 땀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땀의 결실입니다. 주님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눅22:44).
- 여섯째, 사망입니다(창3:19). 죄의 샅이 사망입니다(롬6:23). 죄의 완료가 사망입니다(약1:15). 죄는 사람 안에서 일하고 마침내 사망이란 샅을 받아 갑니다. 사망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폐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2:8).

이를 통해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제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고통도 슬픔도 가시도 땀도 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땅과 모든 동식물에게도 미쳤습니다. 로마서8:22에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롬8:22)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은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물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의 공통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롬8:19).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과 자연 만물을 에덴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건희 사막과 광야가 열매를 풍성히 내는 밭이 되고, 물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연보호운동, 환경운동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시도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땅에 부여된 저주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나 환경 보호와 같은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충족시키고 죄의식을 완화해 보려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이런 시도는 사실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연 보호, 환경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온 세상에 내려진 창조물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분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고 사신 모든 것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20). 아담은 여자라 불렀던 자기 아내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이브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브는 드디어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녀의 이름은 남편 아담을 따라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창5:2). 죄인의 특성은 독립 지향적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유인이면서 종속적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종속적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렇게 종속적입니다. 유기체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크리스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는데 이브를 통해 주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과거 여자가 한 일, 범죄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약속과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21).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한 뒤에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 받을 때 받지 못했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옷을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가릴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들을 가릴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릴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몇 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며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리에 옷을 입지 않고 다녀 보십시오. 곧 바로 경찰에 잡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 대신 친히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런 행위나 공로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내보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벗기신 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흔히 성화나 영화 등에서 그려지는 모습과 달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것도 입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의 옷을 벗겨 버린 채 못을 박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수치와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참수형이나 투석형이 아닌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벌거벗겨지셨습니



다. 이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자기 의, 인간의 행위, 육신의 노력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신 옷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예표 합니다. 가죽 옷이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장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입는 모피 코트, 가죽 잠바 등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옷을 취한 것입니다. 양 가죽은, 양의 죽음을 통해 양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내어 사람들이 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옷’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취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엡6:11)는, 주님의 옷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갈3:27 롬13:14).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13:12). 빛의 갑옷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빛의 갑옷’, ‘새 사람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롬13:14).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제공해 준 어린 양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신 옷이 없다면 그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거부한 채 무화과나무로 엮은 옷을 고집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부적격자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2:11-13). 주님이 준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왕은, 손님들을 볼 때 그들이 입은 옷을 보셨습니다. 계시록 3:5에서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계3:5)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계3:18)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화려한 치장의 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혼’들에게도 옷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계6:11).

자, 주목하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 죽음이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 누군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지은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뱀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지식을 얻은 후 주님으로부터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창4:4;22:8).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양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지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그 장면을 통해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창세 전에 그 죽음이 예비 되었고(벧전1:20),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며(계13:8), 충만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갈4:4)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요1:29).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도 아닙니다.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이상한 괴물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 처음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아담과 이브는 살았고, 거기서 나온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계7:10),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계5:12),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양(계5:12)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털을 깎아 그 털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옷, 자기가 돈을 주어 산 옷, 자기 힘으로 애써 만든 ‘자기 의’란 옷을 벗고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옷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네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네게 입히리라, 하시기에”(슥3:4). 주님은 아담과 이브의 옷을 갈아 입혀 주셨습니다. 새 옷을 받은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입혀 주신 옷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사61:10). “입히시고...”란 말씀을 통해 이 일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3:5). 아담이 그러하듯 아담의 자녀들은 그 누구라도 아담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옷, 구원의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계5:12)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 생명나무

말씀: 창3:22-24

요절: 창3:22

사람에게 먹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며 또한 육체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까지 좋아지지만 어떤 음식은 먹을수록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몸을 약하고 상하게 하여 병들게 만들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항상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을 먹었는가? 대체 뭘 잘못 먹었는가?’입니다. 누구는 맛있게 먹는 땅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온 몸이 붓고 가렵고 발작을 합니다. 새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는 망고지만 어떤 사람은 먹다가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합니다. 맛있게 복어를 먹다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해치는 더러운 음식, 독성이 가득한 음식들이 있고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한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 혼이 약해지고 양심은 약해지고 더럽혀집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산모들은 먹는 음식에 매우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영적 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창세기 1:29-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29-30).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모든 동물들 역시 처음에는 다 채식만 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채식주의자들(vegetarians)은 계란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라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 종교 역시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교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음식 문제가 몸의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수행과 깨달음, 수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에 따라 음식 규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던(창1:29) 아담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창3:18),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먹도록(창9:3-4) 허락하셨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다시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의 변화, 세대적 진리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모든 과일 나무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계10:9)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은 먹으라고 명령한 양식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렘15:16)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 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고(시119:103), 욥은 일용할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욥23:12).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듣고 읽음으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입니다(잠3:18).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동산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요, 한 그루의 나무는 죽음(사망)을 주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에덴의 한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 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후에 주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30:19).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헛갈리거나 갈등하거나 고뇌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34,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수8:34). 율법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창2:17)고 하심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 대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생명 대신 사망을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택해야 할 것’을 알려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잘못 선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기 위해 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바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바른 선택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셨습니다. “그가 버터와 꿀을 먹졌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사7:15).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히5:14).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지 말고 항상 생명나무를 택할 줄 알도록 경건의 연습과 훈련, 믿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22). 주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친히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주님은 아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죽게 된다



는 것만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사람에게 주는 몇 가지 효과, 결과를 말해 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나니라.”(창3:5).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통해 아담은 눈이 열렸고,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란 말씀대로 신들과 같이 되었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았습니다. 아담은, 마귀가 말한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남자(아담)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덕분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악을 미워하여 거절하고 버릴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은, 아담에게 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쉘라.”(시52:3).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선악을 안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 죄를 통해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욕심,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불법, 의보다 불의, 바른 것보다 굵은 것, 빛보다 어둠, 선보다 악, 참보다 거짓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품이요 기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렘4:22). 선과 악을 알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후로 선을 행하는 대신 악을 생각하고 악을 따를 뿐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선악을 아는 지식’만 줄 뿐 선을 행할 능력, 악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성품(nature)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진리이며 우리 자신이 현재 체험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6:5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것을 보신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2).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전7:20)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롬7:19)고 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주는 부작용,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떡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먹은 후에나 알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복을 줄 것처럼 속였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요, 저주요, 사망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담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인 것은, 아담의 육신 안에서는 더 이상 선한 것(하나님의 형상)이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롬3:18-20). 아담 안에는 죄의 법이 거하고(롬3:23), 죄의 소욕이 지배함으로 ‘불법으로 얻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삶을 사는데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해로울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의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이 함께 있으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7:21).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 내셨는데 이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재앙과 저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죄인들의 죄악된 삶을 무한 연장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선을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이기면 주어지는 상급이나 유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와 마찬가지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금지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의 변화입니다. 음식 규례가 바뀐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먹던 음식과 달리 이제는 직접 땅을 갈아서 나무와 채소 외에 땅에서 나는 것들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나무였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으면 육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죄의 몸을 입은 채 영원히 산다면 마귀나 다름 바가 없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23). 하나님은,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 보내셨습니다. 추방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떨어진 주님의 명령대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의 불순종,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을 갈게 하시고,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24).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나무’를 취하려는 욕심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 버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아예 에덴의 동산 동쪽을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는 아무런 조치를 해 두지 않았습니. 덕분에 여자나 아담이 원하기만 하면 쉽게 접근해서 손을 내밀어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명나무는 그냥 금지된 정도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접근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이 아니었기에 자율과 선택의 문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도 생명나무에 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수많은 민족들의 신화나 전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나 생명

나무에 대한 신화, 전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향, 낙원,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모두 에덴의 동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지키는 문이 있고 덕분에 사람들은 서쪽에 낙원, 극락, 이상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는 서쪽 끝에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 나오는데, 그곳에 헤라의 과수원이 있고, 누구든지 거기서 열리는 황금 사과를 먹으면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Golden Apple을 생명나무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룹들이 아니라 머리가 100개 달린 용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에도 무릉도원에 관한 전설이 있고, 천도복숭아를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말합니다. 중국에는 서쪽 끝 옥산이란 곳에 서왕모가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복숭아 밭이 있고, 이 복숭아를 먹으면 영생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국에는 이 복숭아를 훔쳐 먹은데 성공한 ‘항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극락’이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아미타경). 서방정토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쪽에 극락이 있다, 영생을 주는 나무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는 모두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민족들의 종교, 철학, 신화 등이 성경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에덴의 동쪽 문으로 나와 서쪽을 바라보며 산 역사가, 노아의 홍수 이후 각 민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는 요한 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허락됩니다. 누구에게 허락되니까? 계시록2: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2:7). 이기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요, 이긴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 몸, 영광스런 몸, 부활의 몸은,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이 유지되거나 연장되는 몸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 믿음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 ‘어린 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강둑에는 나무들이 자라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천년왕국에 사는 민족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겔47:1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2).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육체에 생명을 주고(계22:14), 그 잎사귀들은 치유하는 약(계22:2)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통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14을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계22:14). 생명나무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생명나무는 처음에 아담에게 값없이 주어졌던 것과 달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금지되었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제외하고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에 언급되어 있는 생명나무는, 문자적으로 땅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잠언3:18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잠3:18).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둘째, 생명나무는 의로운 자의 열매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 11:30). 의로운 자의 열매 즉 구원 받은 혼들은 모두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의 부활의 첫 열매 구속 받은 창조물의 첫 열매(고전15:20 롬8:23-성령의 첫 열매) 종류입니다. 이 점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크리스천들이며, 우리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셋째, 성취된 소망이 생명나무입니다.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잠13:12). 마음의 소원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지만, 그 성취는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스런 소망, 복된 소망 등은 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넷째,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의 비뚤어진 것은 영 안의 갈라진 틈이니라.”(잠 15:4). 건전한 말을 하는 혀가 건전한 혀입니다. 혀는 영의 깊은 것들을 길어 올리며, 배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며, 마음속의 보화들을 쏟아냅니다(마12:35 눅6:45). 혀를 통해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 질문과 답변

말씀: 창3:22-24

요절: 창3:22

오늘은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 및 교리적 논쟁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실제 역사적 내용 보다는 문학적 상징이나 은유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의문을 다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궁하기 어려워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 스스로 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추측과 단정으로 말씀을 재 정의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일은 멸망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벧후 3:16).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흔히 받는 질문들입니다. 뱀은 누구인가? 뱀의 씨는 누구인가? 선악과는 무엇인가?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할 때 아담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생명나무는 언제까지 지상에 있었고 지금도 지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자는 뱀과 성적 접촉이 있었는가? 이런 부류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줄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한 두 번은 들었거나 해 보았을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 내용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시작, 불순종, 사탄의 운명, 인간의 구원, 여자의 씨,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 땅의 저주, 모든 창조물에게 임한 저주 등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모두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독특한 교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관한 독특한 교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기독교 영화나 성화 등으로 불리는 그림들에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요 열매는 사과로 묘사되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선악과는 사과인 줄로 알았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남자의 목에 나타난 볼록한 부분을 Adam's Apple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놀랍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 언어 속에 이미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입으로 행한 범죄를 늘 상기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진리이지만 '아담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성경적 진리'를 말(영어:Adam's Apple)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각 사람의 목에 아담의 죄를 기억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8에서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롬10:8)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로 부터 가장 자주 듣는 성경적 진리는 가 ‘말세다, 말세’란 말입니다. 이 세대가 말세란 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담의 존재와 아담의 죄가 입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말합니다. 불신자요, 이교도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일상 언어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온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흥분하고 들뜨는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불신자들, 이교도들이 ‘크리스마스’란 말을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크라이스트(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인데,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논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든 풍습과 관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무슬림 들일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서양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번 “금 사과”(잠25:11)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선악과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몇 백 구절의 성경 구절들을 펴서 이 나무는 ‘포도나무’란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 보면 선악과는 포도나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만큼 연관성이 많아 보입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선악과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창2:17)”입니다. 고로 사과나무이니 포도나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를 비롯해 어떤 교단에서 선악과는 실제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과일을 먹은 이브는 뱀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12을 보십시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요일3:12). 이 구절을 통해 가인은 “저 사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브가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마귀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8:44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기 때문이라.”(요8:44).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아무도 육체적으로 마귀와 연관된 사람은 없습니다.

뱀과 여자의 육체적, 성적 접촉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의 상상력과 추측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11:3). 이 구절을 들어 어떤 이는, 이브가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

서 자신의 순결을 잃었고, 저 사악한 자에 의해 가인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창4:1). 가인의 육체적,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가인을 낳고”(창4:1). 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낳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따른다는 의미이지 생물학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4을 보면,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딤후2:14)고 말합니다. 아담은 여자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더하거나 임의로 추측하는 것은 늘 진리에서 벗어나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는 세 명이었고,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마차를 타고 갔다, 엘리야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함선이었다 등등의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진리(성경적 사실)를 배우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 배워온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와 대화할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6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창3:6). 이 구절을 보면 아담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킹 제임스 성경은 2인칭에 대한 단,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인 대명사는 ‘T’자로 시작되는 반면, 복수인 대명사는 ‘Y’자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thy, thou, thine은 단수이며 ye, you, your는 복수입니다. 창세기 3:1-5절까지 “너”(Thou)가 아닌 “너희들”(Ye)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계속 ‘복수’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2인칭 복수인 “너희들(Ye)”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7절을 보면, ‘아담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함께 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고 아담은 속지 않고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딤후2:14).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 죽이신 동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탈굼(Targum)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귀가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염소의 예표가 되어 버립니다(레16:5-10). 이는 제칠일 안식교의 메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장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 뱀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한다는 의미로 ‘뱀 가죽’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이 뱀으로 된 가죽 옷을 입도록 하신 예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 잡은 짐승은 어린양이었습니다. 옷의 의미나 속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를 대신해 죽은 짐승이 어린양임을 인정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초로 죽은 사람은 양치기 아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헌물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위해 자신을 어린양으로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22:14). 유월절 저녁에 어린양의 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출12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Unto you) 이날 구원자가 나셨으니...(눅2:11)” 라고 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요 1:29).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어린양’입니다. 그분은 털 깎는자들 앞에서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사53:7-12).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살해당한 어린양이 왕좌가운데 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계5:6). 이로써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결과를 덮으시도록 죽임 당한, 아담과 여자의 가족 옷을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린 짐승은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잡아 죽인 짐승이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증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완성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에는 그 이름이나 정체가 없지만 뒤로 갈수록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란 점에서 볼 때 에덴에서 죽은 짐승(창3:21)이 요한 계시록에서 어린양으로 불린(계5:6) 바로 그분의 모형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생명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각 민족마다 천도복숭아, 금 사과, 불로초, 올리브 나무 등으로 다양하게 전해 내려오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역시 나무 이름 자체가 “생명나무(창2:9;3:22)”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름을 대체해서 붙일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상상의 영적 나무가 아니라 일반 유실수들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는 질병을 치유하고 그 열매는 육체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범죄한 사람에게 접근이 금지되었고(창3:24)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볼 때(계22:2)까지 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는 지혜, 의로운 자의 열매, 소망, 건전한 혀(잠3:18;11:30;13:12;15:4)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은 금지된 것들이 아니라 성도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왔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10:10).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에덴의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룹입니다. 그룹(케루빔)이라 불리는 이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란 말보다 그룹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은 천사, 마귀, 그룹, 스랍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 그룹과 스랍은 둘 다 날개가 있고 주님의 보좌와 연관이 있는 존재들로 성경에 매우 제한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낙원 동편에 그룹들을 두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의 낙원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생명나무를 취하려



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는 천사들이 아니라 그룹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요 그룹을 타고 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삼하22:11).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곳은 에스겔 1장과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제작할 때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출26:1,31;36:8,35). 공홀의 자리 양 옆에 그룹들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구약 성도들 중에 성막을 본 사람들은 형상으로나마 그룹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의 동편 입구를 지키게 하셨는지는 짐작과 추측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한 때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겔28:12)이었습니다. 마귀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기타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유1:9). 천사장 미가엘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마귀가 에덴에 와서 사람을 범죄케 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천사들이 아닌 그룹들을 지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불순종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려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 그룹들과 불 같은 사람들과 마귀를 동시에 지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타는 칼’(a flaming sword)에 대해서는 창세기 3:24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지 마지막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불타는 숯덩이 등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불 말, 불 병거’ 등과 같이 불타는 칼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칼로서 영적인 칼입니다. 이 칼은 그룹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나 저 하늘에서 용들과 싸울 때 하늘의 군대가 사용할 칼로 보일 뿐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은 다른 성경을 통해 비교하고 유추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도 이상의 호기심으로 인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허다합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시104:4)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꽃’(flaming fire)으로 불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영적 원칙은 율법 이전, 율법 아래, 은혜의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와 심판, 땅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 동물들을 비롯한 창조 세계에 임한 저주와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알아서 동산을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갔습니다(drive out). ‘이끄심과 쫓아내심’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끄십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12:32).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이며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강제하시거나 억압하시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제공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질질 끌어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 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끄심과 내쫓으심 등

모든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담을 동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동산에서 쫓아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 하나님의 ‘내던짐(casting), 몰아냄, 쫓아냄(driving)’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창3:24)”라는 말씀을 통해 죄인은 주님께로부터 내쳐짐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라(마7:23;25:41)”는 주의 말씀은 백보좌 심판에서 죄인들이 듣게 될 주님의 판결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마 7:23, 눅13:27.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의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들로 인해 동산 밖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창세기 3:23-24의 말씀은, 에덴의 동산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아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차 백보좌 심판에서 죄인들은 불 못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택이요, 자율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내던져지는 것은 강제입니다.